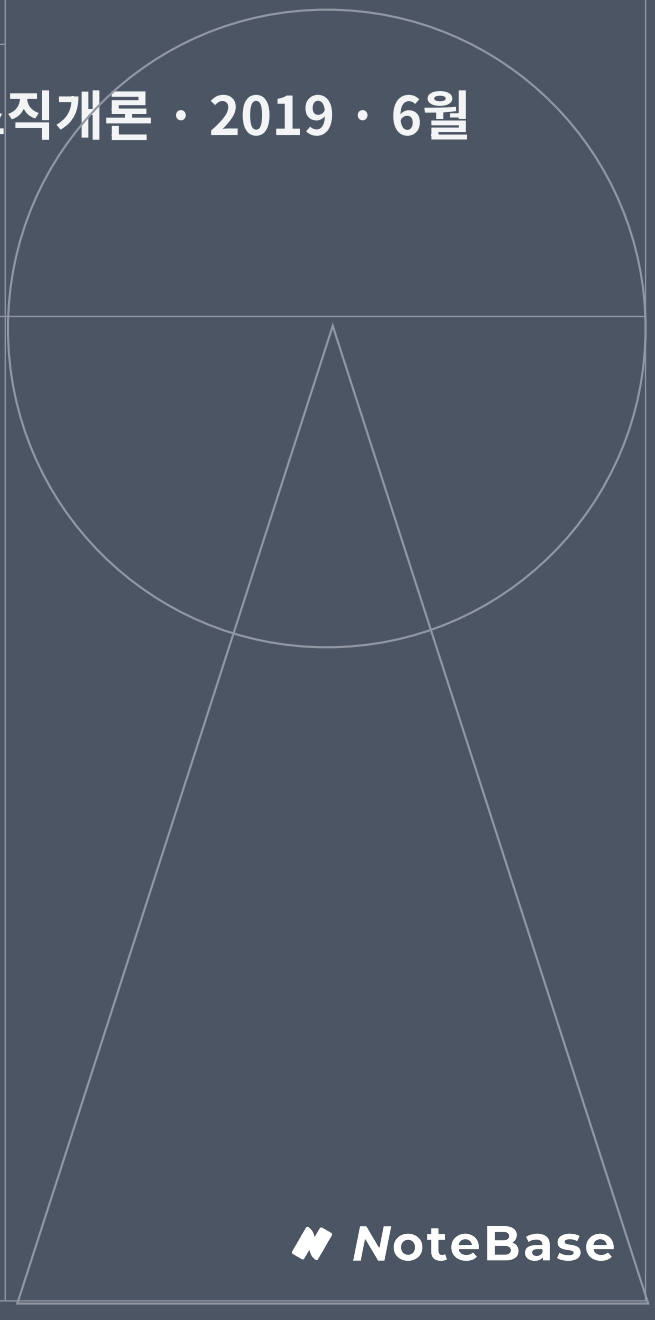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자료조직개론 · 2019 · 6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자료조직개론 · 2019 · 6월

공무원/서울시/9급 · 자료조직개론 · 2019 · 6월

문 1. 서양의 자료분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게스너는 『세계서지(Bibliotheca Universalis)』를 완성하였는데, 철학을 예비적인 것과 기본적인 것으로 양분하고 25개 주제로 세분하였다.

② 베이컨의 학문분류는 보들레이안 도서관의 초창기 분류, 역베이컨식인 해리스분류법, 제퍼슨문고의 분류에 영향을 주었다.

③ 해리스의 분류법은 분류기호와 도서기호를 서가배열, 목록배열, 대출과 반납에 사용한 최초 분류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④ 카터는 모든 지식을 주제의 진화순서로 배치한 전개분류법을 제안하였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게스너의 분류체계는 철학을 예비적인 것과 기본적인 것으로 나누고, 이를 **25개가 아니라 21개 주제**로 세분하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게스너는 『세계서지』의 주제별 분류체계에서 철학을 예비적인 것과 기본적인 것으로 양분하고 **21개 주류**로 세분하였다. 따라서 '25개 주제'를 '21개 주제'로 고쳐야 한다.

② O: 베이컨은 인간의 정신능력인 기억·상상·이성에 대응하여 학문을 역사·시학·철학으로 구분하였다. 이 학문분류는 보들레이안 도서관의 초창기 분류와 제퍼슨문고의 분류에 영향을 주었다. 해리스는 베이컨의 순서를 뒤집어 **철학·시학·역사에 대응하는 과학·예술·역사** 순으로 배열하였으므로 역베이컨식이라고 한다.

③ O: 해리스 분류법은 **분류기호와 도서기호를 서가·목록 배열 및 대출·반납에 함께 사용**한 최초의 분류법으로 인정받는다. 분류기호는 자료의 주제를 나타내고 도서기호는 같은 분류에 속한 개별 도서를 구별하므로, 자료를 배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출·반납할 도서를 식별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④ O: 카터(C. A. Cutter)는 **주제의 진화순서**를 분류 배열의 원리로 삼은 전개분류법을 제안하였다.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나아가는 질서를 지식의 배열에도 반영하려는 것으로, 자연과학 분야에서 무기물에서 생물로, 식물에서 동물로 이어지는 순서가 그 예이다.

NoteBase

문 2. 도서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자료에 특정적인 도서기호를 부여함으로써 상호 배타적인 청구기호를 구성하는 데 유리하다.

② 도서관 장서점검을 위한 식별요소에 해당한다.

③ 도서기호는 부여할 대상이 저자나 서명이기 때문에 분류 및 편목의 속성을 함축한다.

④ 자료의 배가위치를 결정하는 일차적인 기준인 동시에 순차적 배열을 가능하게 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배가위치를 결정하는 일차적인 기준'은 **분류기호**에 대한 설명이다. 도서기호는 **동일한 분류기호 안에서** 개별 자료를 구별하고 배열 순서를 정하는 이차적 기준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분류기호는 주제가 같은 여러 자료에 공통으로 부여될 수 있다. 여기에 자료를 개별화하는 **도서기호를 덧붙이면** 서로 다른 자료의 청구기호를 구별하기 쉽다. 필요한 경우 권차기호나 복본기호도 더하여 구분한다.

② O: 도서기호는 청구기호의 구성요소로서 **장서점검 때 자료를 식별하는 데** 쓰인다. 목록에 기록된 청구기호와 서가의 자료를 대조하면 해당 자료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③ O: 저자나 서명을 바탕으로 도서기호를 부여하면, 동일 주제 안에서 자료를 구분하여 배열한다는 점에서 분류의 성격을 지닌다. 동시에 **저자·서명이라는 서지적 요소**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편목의 성격도 함께 지닌다.

④ X: 주제에 따른 배가위치를 정하는 일차적 기준은 **분류기호**이다. 도서기호는 같은 분류기호를 받은 자료들 사이에서 개별 자료의 순서를 정하는 **이차적 기준**이다. 따라서 순차적 배열을 가능하게 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일차적 기준이라는 부분은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3. Cutter-Sanborn 세 자리 저자기호표(Three-Figure Author Table)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서명이 표목으로 채택되는 자료는 서명(또는 통일 서명)을 기호화하되, 첫 단어가 관사(불용어)일 때는 그 다음 키워드를 기호화한다.

② 전기자료는 저자의 성을 기호화하고, 대상인물인 피전자를 저작기호로 간주하여 부기한다.

③ 동일한 분류기호하에서 저자기호가 중복될 때는 숫자 '5'를 사용하여 저자기호를 적절히 조정한다.

④ 저자명 가운데, Mc, Mac, M'으로 시작되는 철자는 모두 Mac으로 취급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는 피전자와 저자의 역할을 뒤바꾼 설명이다. 전기자료는 **피전자의 성을 기준으로 저자기호**를 만들고, **전기를 쓴 저자의 성 첫 글자**를 저작기호로 덧붙인다.

선지별 해설

① O: 서명 또는 통일 서명이 표목인 자료는 그 서명을 기준으로 기호를 부여한다. 첫 단어가 관사이면 **관사를 제외한 첫 키워드**를 사용하므로, 관사 때문에 자료의 배열 위치가 달라지지 않도록 한다.

② X: 전기자료에서는 생애의 서술 대상인 **피전자의 성으로 저자기호**를 만들고, 전기를 쓴 **저자의 성 첫 글자를 저작기호**로 부기한다. 이렇게 하면 같은 인물에 관한 전기자료가 한곳에 모이고, 그 안에서는 전기 저자에 따라 구별된다. 선지는 저자기호와 저작기호를 만드는 기준을 서로 뒤바꾸었다.

③ O: 같은 분류기호 안에서 서로 다른 저자에게 동일한 저자기호가 부여되면 숫자를 추가하여 구별한다. 이때 **숫자 '5'를 덧붙이면 앞뒤로 추가 기호를 삽입할 여지**를 남길 수 있다. 저자기호의 숫자 부분은 소수식으로 배열하므로, 기존 알파벳순을 유지하면서 중복을 조정할 수 있다.

④ O: Mc, Mac, M'으로 시작하는 성은 저자기호표를 적용할 때 모두 **Mac으로 철자된 것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Mc와 M'도 Mac을 기준으로 표에서 해당 기호를 찾는다.

NoteBase

문 4. 통합서지용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의 설계 원칙 중 형식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서(BK): 단행자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쇄물, 필사본 그리고 마이크로자료를 말한다.

② 고서(RB): 대한제국(1910) 이전에 간인(刊印), 필사(筆寫)된 동장본(東裝本)을 말한다.

③ 시청각자료(VM): 인쇄, 필사 또는 마이크로자료 등 모든 형태의 음악자료와 음악 이외의 녹음자료가 포함된다.

④ 복합자료(MX): 주로 여러 형태가 혼합되어 수집된 문서나 필사자료에 적용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음악자료와 음악 이외의 녹음자료는 **음악/녹음자료(MU)**에 해당한다. 시청각자료(VM)는 평면영사자료, 평면비영사자료, 입체자료·실물자료와 키트를 포함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도서(BK)는 **단행자료의 특성**을 가진 인쇄물·필사본·마이크로자료에 적용한다. 따라서 종이책뿐 아니라 단행자료를 마이크로형태로 만든 자료도 이 범위에 포함된다.

② O: 고서(RB)는 **대한제국(1910) 이전에 간인하거나 필사한 동장본**을 뜻한다. 간인은 판으로 찍어 내는 것, 필사는 손으로 베껴 쓰는 것이며, 여기서는 제작 시기와 동장본이라는 형태를 함께 기준으로 삼는다.

③ X: 인쇄·필사·마이크로형태 등의 음악자료와 음악 이외의 녹음자료를 포함하는 것은 **음악/녹음자료(MU)**이다. 시청각자료(VM)에는 평면영사자료, 평면비영사자료, 입체자료·실물자료와 키트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영화필름·슬라이드는 평면영사자료, 사진·포스터는 평면비영사자료에 해당한다.

④ O: 복합자료(MX)는 **여러 형태의 문서나 필사자료를 혼합하여 수집한 자료군**에 주로 적용한다. 개인이나 가족이 모은 자료를 하나의 문고로 일괄 처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는 서로 다른 매체의 자료가 하나의 세트를 이루는 키트와 구별된다.

NoteBase

문 5. <보기>에서 밑줄 친 '최후수단표'의 순서로 옳은 것은?

<보기>
· 문헌이 하나 이상의 주제를 다루는 경우 분류기호는 도서관의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 DDC에서는 표준화를 위해 몇 가지 규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삼자포괄규칙, 적용규칙, 0의 규칙 등이다.
· 이러한 모든 규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최후수단표를 따른다.

① 사물의 종류(kinds) - 재료(materials) - 속성(properties) - 부분(parts) - 절차(processes) - 공정(operations) - 도구(instrumentalities)

② 사물의 종류(kinds) - 부분(parts) - 재료(materials) - 속성(properties) - 절차(processes) - 공정(operations) - 도구(instrumentalities)

③ 사물의 종류(kinds) - 절차(processes) - 부분(parts) - 속성(properties) - 재료(materials) - 공정(operations) - 도구(instrumentalities)

④ 사물의 종류(kinds) - 속성(properties) - 재료(materials) - 절차(processes) - 부분(parts) - 공정(operations) - 도구(instrumentalities)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최후수단표는 여러 분류항목 중 하나를 고를 때 적용하는 우선순위로, **사물의 종류 다음에 부분**을 두고 그 뒤에 재료와 속성을 둔다. 뒤쪽에서는 대상 내부에서 일어나는 절차를 대상에 가하는 공정보다 앞세우고, 그 공정에 쓰이는 도구를 마지막에 둔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사물의 종류 → 부분 → 재료 → 속성 → 절차 → 공정 → 도구

사물의 종류(kinds): 대상이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를 뜻하며, 최후수단표에서 가장 먼저 고려한다. 최후수단표는 여러 분류기호가 비슷하게 적합하고 다른 규칙으로 결정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선택 우선순위**이다. 이 표를 적용할 때도 저자의 의도와 강조점을 존중해야 한다.

부분(parts): 사물을 구성하는 부분을 뜻한다. 사물의 종류 다음에 고려하며, **재료보다 우선한다**.

재료(materials): 사물이나 그 종류·부분을 이루는 재료를 뜻한다. 부분 다음에 고려하며, 재료의 성질인 속성보다 앞선다.

속성(properties): 사물이나 그 종류·부분·재료가 지닌 성질을 뜻한다. 재료 다음에 고려하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절차보다 앞선다.

절차(processes): 사물이나 그 종류·부분·재료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뜻한다. 속성 다음에 고려하며, 대상에 가하는 공정보다 앞선다.

공정(operations): 사물이나 그 종류·부분·재료에 **가하는 작업**을 뜻한다. 절차 다음에 고려하며, 그 작업을 수행하는 도구보다 앞선다.

도구(instrumentalities): 공정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수단이나 도구를 뜻한다. 최후수단표에서는 공정 다음으로, 마지막에 고려한다.

NoteBase

문 6. 한국십진분류법(KDC) 제6판에서 '언어'와 '문학'의 언어 구분은 <보기>와 같은 조기성을 갖는다. ㉠과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언어구분	언어	문학	(㉠)	강연집	(㉡)
-1	한국어	710	810	031	041	051
-2	중국어	720	820	032	042	052
-3	일본어	730	830	033	043	053
-4	영어	740	840	034	044	054
-5	독일어	750	850	035	045	055
-6	프랑스어	760	860	036	046	056
-7	스페인어	770	870	037	047	057
-8	이탈리아어	780	880	038	048	-

① ㉠: 일반학회, ㉡: 각국신문

② ㉠: 백과사전, ㉡: 일반 연속간행물

③ ㉠: 일반학회, ㉡: 일반 연속간행물

④ ㉠: 백과사전, ㉡: 각국신문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표의 03으로 시작하는 분류기호는 **백과사전**, 05로 시작하는 분류기호는 **일반 연속간행물**에 해당한다. 한국어에 1, 중국어에 2처럼 언어별로 같은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이 언어 구분의 조기성이다.

NoteBase

빈칸별 해설

조기성은 같은 개념에 같은 기호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분류기호를 쉽게 기억하도록 하는 성질이다. 이 표에서는 한국어에 1, 중국어에 2, 일본어에 3, 영어에 4를 대응시키는 언어 구분이 여러 분류 항목에 반복된다.

㉠ 백과사전: 030은 백과사전이며, 표의 031은 한국어 백과사전, 032는 중국어 백과사전, 034는 영어 백과사전에 해당한다. 언어의 710·720·740과 문학의 810·820·840에서 쓰인 언어 구분 숫자 1·2·4가 백과사전에서도 반복된다. 따라서 031~038이 제시된 열의 제목은 **백과사전**이다. 일반학회는 060에 속하므로 이 열에 들어갈 수 없다.

㉡ 일반 연속간행물: 050은 일반 연속간행물이며, 표의 051은 한국어, 052는 중국어, 054는 영어로 된 일반 연속간행물에 해당한다. 백과사전·강연집과 마찬가지로 **사용 언어에 따라 같은 숫자로 구분**하므로 051~057이 제시된 열의 제목은 일반 연속간행물이다. 각국신문은 신문을 다루는 070 아래에 속하므로 이 열의 제목이 아니다.

㉠은 백과사전, ㉡은 일반 연속간행물로, 두 빈칸의 조합은 ②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7. <보기>는 KDC 제6판 본표와 보조표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를 이용하여 '경상도 방언'을 분류한 기호로 옳은 것은?

<보기>
710 한국어
718 방언(사투리)
.1－.9 각 지방의 방언
지역구분표 －111－1199와 같이 세분한다.
지역구분표 －11 대한민국
－118 경상도

① 718.1118

② 718.118

③ 718.18

④ 718.8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경상도의 지역기호 -118에서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공통 부분 11을 제외하고 **세분기호 8만** 방언의 본표 기호 718에 붙이므로 718.8이 된다.

구성 요소별 해설

본표 기호 718: <보기>에서 한국어는 710, 그 아래 방언은 718이다. 분류 대상이 '경상도 방언'이므로 기본이 되는 기호는 **한국어 방언을 나타내는 718**이다.

지역 세분기호 8: 본표의 '.1－.9 각 지방의 방언'에는 '지역구분표 －111－1199와 같이 세분한다'는 지시가 있다. 이는 해당 범위의 지역별 구분을 가져오되, 공통 부분인 대한민국의 기호 11은 제외하고 그 뒤의 세분기호를 사용한다는 뜻이다. 경상도는 -118이므로 **11을 제외한 8**을 사용한다. 718 자체가 이미 한국어 방언을 나타내므로 대한민국의 기호를 다시 붙이지 않는다.

두 요소를 결합하면 본표 기호 718 뒤 소수점 아래에 8을 붙인 718.8이 되며, 이는 ④의 기호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8. 듀이십진분류법(DDC) 제23판에서 <보기>와 같은 주기를 바탕으로 할 때 분류기호가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721–729 specific aspects of architecture
Add to each subdivision identified by * as follows:
01–09 standard subdivisions
……

725.3 *Transportation, storage, agricultural buildings
Subdivisions are added for transportation, storage, agricultural buildings together; for transportation buildings alone
725.31 *Railroad and rapid transit stations
————————————
*Add as instructed under 721–729

① 『History of Transportation, storage, agricultural buildings』 725.309
② 『Dictionary of Transportation buildings』 725.303
③ 『Dictionary of Storage Buildings』 725.3
④ 『Serial of Agricultural Buildings』 725.305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농업용 건축물만 다룬 연속간행물에는 **표준구분 05를 붙일 수 없다**. 제시된 주기는 세 주제를 함께 다루거나 교통용 건축물만 다룰 때 세분하도록 하므로, 이 자료의 분류기호는 725.3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표준구분은 해당 분류항목의 주제 전체 또는 전체에 준하는 범위를 다룰 때 적용한다. 보기의 725.3 주기는 교통용·저장용·농업용 건축물을 함께 다룬 자료와 교통용 건축물만 다룬 자료에 세분을 허용한다. 별표(*)는 721–729 아래의 지시에 따라 표준구분 01–09를 붙이라는 뜻이며, 725.3에서 정한 적용 범위를 없애는 표시는 아니다.

① O: 교통용·저장용·농업용 건축물의 역사를 다루므로 **세 주제를 함께 다루는** 경우에 해당한다. 725.3에 역사를 나타내는 표준구분 09를 붙여 725.309로 분류한다.

② O: 주기는 **교통용 건축물만 다루는 경우에도** 세분을 허용한다. 따라서 교통용 건축물 사전은 725.3에 사전·백과사전 등을 나타내는 표준구분 03을 붙여 725.303으로 분류한다.

③ O: **저장용 건축물만 다루는 경우는 세분 허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전 형식이어도 표준구분 03을 붙이지 않으므로 725.3으로 분류한다.

④ X: **농업용 건축물만 다루는 경우에도 세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연속간행물을 나타내는 표준구분 05를 붙일 수 없으므로, 725.305가 아니라 725.3으로 분류한다.

NoteBase

문 9. DDC 제23판과 KDC 제6판의 분류기호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것끼리 연결된 것은?

① DDC 330 - KDC 320

② DDC 510 - KDC 410

③ DDC 840 - KDC 850

④ DDC 950 - KDC 91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DDC 840은 **프랑스문학 및 관련 문학**을, KDC 850은 **독일문학**을 나타낸다. 두 기호가 서로 다른 언어권의 문학을 가리킨다.

선지별 해설

① DDC 330 - KDC 320: DDC 330은 경제학이고 KDC 320도 경제학이다. 기호는 다르지만 **같은 주제인 경제학**을 나타낸다.

② DDC 510 - KDC 410: DDC 510과 KDC 410은 모두 **수학**이다. 수학의 분류 위치가 두 체계에서 다를 뿐, 나타내는 주제는 같다.

③ DDC 840 - KDC 850: DDC 840은 **프랑스문학 및 관련 문학**이고, KDC 850은 **독일문학**이다. 두 기호는 서로 다른 언어권의 문학을 나타낸다. 프랑스문학은 KDC에서 860에, 독일문학 및 관련 문학은 DDC에서 830에 배정된다.

④ DDC 950 - KDC 910: DDC 950은 아시아 역사이고, KDC 910은 역사 분야의 아시아이다. 두 기호는 모두 **아시아의 역사**를 나타낸다.

따라서 ①·②·④는 같은 주제를 연결한 쌍이고, ③은 서로 다른 주제를 연결한 쌍이다.

NoteBase

문 10. 목록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제위트(Jewett)의 『대영박물관 목록규칙』은 91개조의 목록편성규칙이다.

② 카터(Cutter)는 1906년 『사전체목록규칙』을 처음 발표하였다.

③ 『프로이센 목록규칙』은 기본기입에서 단체저자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았다.

④ 고재창은 서명기본저록 기반의 『조선동서편목규칙』을 발표하였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프로이센 목록규칙』은 **단체를 저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관이나 학회 명의의 자료라도 단체명을 기본기입의 저자 표목으로 삼지 않았다.

선지별 해설

① X: 91개조로 이루어진 『대영박물관 목록규칙』의 편찬자는 제위트가 아니라 **파니치(Panizzi)**이다. 이 규칙은 1841년에 발표되었다. 선지는 규칙의 조문 수는 맞지만 편찬자를 잘못 연결했다.

② X: Cutter가 『사전체목록규칙』을 처음 발표한 해는 1906년이 아니라 **1876년**이다. 따라서 이 선지는 초판 발표 연도가 잘못되었다.

③ O: 단체저자는 정부기관·학회 등의 단체를 그 단체가 작성한 자료의 저자로 인정하는 개념이다. 『프로이센 목록규칙』은 **단체저자를 인정하지 않아** 단체명을 기본기입의 저자 표목으로 삼지 않았다. 단체 명의의 자료도 개인저자가 있으면 개인저자로, 개인저자가 없으면 무저자 자료로 보아 서명으로 기입했다.

④ X: 『조선동서편목규칙』의 편찬자는 고재창이 아니라 **박봉석**이다. 1948년에 발표되었으며, 서명목록과 저자명목록을 병용하되 서명목록을 중심으로 삼았다. 따라서 '서명기본저록 기반'이라는 설명은 맞지만 편찬자가 잘못되었다.

NoteBase

문 11. 한국목록규칙 제4판(KCR4)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목록의 기능을 처음으로 제시한 규칙이다.

②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모든 자료를 전자자료의 범주에 포함하고, 그 밖의 자료는 화상과 영상자료로 통합하여 적용하였다.

③ 저록에 포함되는 책임표시(저자 등)의 수에 원칙적으로 제한을 가하지 않았다.

④ 통일표목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전 판에 비해 기술의 대상을 크게 확장하였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KCR4는 **통일표목을 적용하지 않고**, 서로 다른 이름이나 표기 형태의 연결은 전거제어로 해결하도록 하였다. 단행본 중심에서 다양한 매체로 기술 대상을 확대한 것은 맞지만, 통일표목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한국목록규칙의 이전 판들과 달리 KCR4는 **목록의 기능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다. 저자·표제·주제로 원하는 자료를 찾는 탐색기능과, 특정 저자의 저작이나 특정 저작의 여러 판을 함께 모아 볼 수 있게 하는 집중기능을 설명한다. 여기서 '처음'은 목록기능론 전체의 역사가 아니라 한국목록규칙의 개정 과정에서 처음이라는 뜻이다.

② O: 컴퓨터로 처리되는 자료를 전자자료의 범주로 다루고, **화상자료와 영상자료의 기술규칙을 통합**하였다. 다만 선지의 '그 밖의 자료'를 모든 비전자자료라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화상·영상자료를 통합하여 규정했다는 취지이며, 단행본·지도자료·녹음자료 등은 각각의 자료유형에 따른 규칙으로 다룬다.

③ O: 책임표시는 자료의 내용에 책임을 지는 저자·편자·역자 등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KCR4는 저록에 기재하는 **책임표시의 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따라서 저자가 여러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일정 인원까지만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X: 통일표목은 같은 사람이나 저작 등이 여러 이름·형식으로 나타날 때 하나의 표준형을 정하여 사용하는 표목이다. KCR4는 **통일표목을 적용하지 않으며**, 서로 다른 형식의 접근점을 전거제어로 연결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통일표목을 적용하고 있으며'를 '통일표목을 적용하지 않으며'로 고쳐야 한다. 이전 판의 단행본 중심 범위를 벗어나 지도·녹음·영상·전자자료 등으로 기술 대상을 확장했다는 뒷부분은 맞다.

NoteBase

문 12. 한국목록규칙 제4판(KCR4)에서 사용하는 구두법의 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호(=)는 대등표제, 총서의 대등표제, 등록표제 앞에 사용한다.

② 빗금(/)은 첫 번째 책임표시 앞에 사용한다.

③ 온점·빈칸·이중붙임표·빈칸(. — —)은 기술의 첫 번째 사항인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을 포함한 각 사항의 첫 요소 앞에 사용한다.

④ 가운뎃점(·)은 책임표시를 제외하고는 정보원에 나타난 그대로 사용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을 포함한'은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을 제외한'**으로 고쳐야 한다.
온점·빈칸·이중붙임표·빈칸은 첫 번째 사항 뒤에 이어지는 각 사항의 시작을 구분하는 데 사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등호(=)는 **대등표제, 총서의 대등표제, 등록표제 앞**에 사용한다. 예를 들어 본표제와 다른 언어의 대등표제를 함께 적을 때는 '본표제 = 대등표제'처럼 구분한다.

② O: 빗금(/)은 **첫 번째 책임표시 앞**에 사용하여 표제 정보와 책임표시를 구분한다. 예를 들어 '자료명 / 홍길동 지음'에서 빗금 뒤의 '홍길동 지음'이 첫 번째 책임표시이다.

③ X: 온점·빈칸·이중붙임표·빈칸은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을 제외한 각 사항의 첫 요소 앞**에 사용한다. 앞 사항이 끝나고 다음 사항이 시작됨을 표시하는 구두점이므로, 기술의 맨 처음인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앞에는 붙이지 않는다. 따라서 선지의 '포함한'을 '제외한'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가운뎃점(·)은 **책임표시를 제외하고 정보원에 나타난 그대로** 사용한다. 표제 등에 나타난 가운뎃점은 그대로 옮기지만, 책임표시에는 책임표시의 구두법을 적용하므로 정보원의 가운뎃점을 무조건 그대로 옮기지는 않는다.

NoteBase

문 13. <보기>는 한국목록규칙 제4판(KCR4)의 기술총칙에서 제시된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의 기술요목들이다.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본표제, 별표제

ㄴ. 권차, 회차, 연차표시

ㄷ. 표제관련정보

ㄹ. 대등표제

ㅁ. 자료유형

ㅂ. 책임표시

① ㄱ - ㄷ - ㄹ - ㅁ - ㄴ - ㅂ

② ㄱ - ㄷ - ㄹ - ㄴ - ㅁ - ㅂ

③ ㄱ - ㅁ - ㄷ - ㄹ - ㄴ - ㅂ

④ ㄱ - ㅁ - ㄹ - ㄷ - ㄴ - ㅂ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KCR4에서는 본표제·별표제 다음에 **자료유형**을 두고, 이어 **대등표제 → 표제관련정보** 순으로 기술한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ㄱ → ㅁ → ㄹ → ㄷ → ㄴ → ㅂ

ㄱ. 본표제, 별표제: 자료의 주된 제목인 본표제를 맨 먼저 기술한다. 별표제도 이 첫 기술요목에 포함된다.

ㅁ. 자료유형: 전자자료·녹음자료 등 자료의 유형을 나타내는 정보이다. 기술총칙의 배열에서는 **본표제·별표제 다음, 대등표제 앞**에 둔다.

ㄹ. 대등표제: 본표제와 다른 언어나 문자로 기재된 표제이다. 자료유형 다음에 기술하며, 표제의 내용을 보충하는 표제관련정보보다 앞선다.

ㄷ. 표제관련정보: 부표제처럼 표제의 내용이나 성격을 보충하는 정보이다. **다른 언어·문자의 표제인 대등표제와 구별**하며, 대등표제 다음에 기술한다.

ㄴ. 권차, 회차, 연차표시: 해당 자료의 권·회·연차를 구별하는 표시이다. 표제관련정보 다음에 두어 표제와 관련된 식별 정보를 제시한다.

ㅂ. 책임표시: 저자·편자·역자 등 자료의 지적·예술적 내용에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와 그 역할을 나타낸다. 권차·회차·연차표시 다음에 두며, 제시된 기술요목 중 마지막에 온다.

NoteBase

문 14. 한국목록규칙 제4판(KCR4)에 따를 때, 비도서자료의 자료유형 표시가 옳지 않은 것은?

① [악보자료] [music]

② [지도자료] [map]

③ [마이크로자료] [microform]

④ [입체자료] [3D]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KCR4에서 악보의 한글 자료유형 표시는 '[악보자료]'가 아니라 **'[악보]'**이다. 영문 표시 '[music]'은 맞다.

선지별 해설

① X: KCR4에서 악보의 자료유형 표시는 한글로 **'[악보]'**, 영문으로 '[music]'이다. 따라서 '[악보자료]'를 '[악보]'로 고쳐야 한다. 다른 자료유형에 '자료'가 붙는다고 해서 악보에도 이를 붙이지 않는다.

② O: 지도자료의 자료유형 표시는 한글로 '[지도자료]', 영문으로 '[map]'이다. 한글과 영문 모두 KCR4에서 정한 표시와 일치한다.

③ O: 마이크로자료의 자료유형 표시는 한글로 '[마이크로자료]', 영문으로 '[microform]'이다. 영문에서도 선지에 제시된 microform을 사용한다.

④ O: 입체자료의 자료유형 표시는 한글로 '[입체자료]', 영문으로 **'[3D]'**이다. 영문 표시가 단어가 아닌 숫자와 문자의 결합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표시는 아니다.

NoteBase

문 15. MODS(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의 20개 상위요소로만 구성된 것은?

① titleInfo, genre

② physicalDescription, description

③ format, typeOfResource

④ name, type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titleInfo와 genre는 모두 MODS의 상위요소이다. titleInfo는 표제정보를, genre는 자료 내용의 장르나 형식적 범주를 기술한다.

선지별 해설

MODS의 상위요소는 MODS 레코드의 최상위 기술 항목이다. 그 안에 포함되는 하위요소나 요소의 성격을 지정하는 속성과 구별해야 한다.

① O: titleInfo는 표제정보를 담고, genre는 자료 내용의 장르나 형식적 범주를 나타낸다. 두 요소 모두 **MODS의 상위요소**이므로 상위요소로만 이루어진 쌍이다.

② X: physicalDescription은 자료의 물리적 특성을 기술하는 상위요소이다. 그러나 description은 **name의 하위요소**로, 이름으로 식별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관한 설명을 담는다. physicalDescription과 description은 같은 수준의 요소가 아니다.

③ X: typeOfResource는 텍스트·지도·음향 등 자료의 전반적인 유형을 나타내는 상위요소이지만, **format은 MODS의 상위요소 명칭이 아니다**. MODS에서 자료의 물리적 형태를 기술하는 form은 physicalDescription 아래에 두는 하위요소이다.

④ X: name은 자료와 관련된 개인·단체 등의 이름을 기술하는 상위요소이다. 반면 **type은 요소의 유형을 구분하는 속성**이다. 예를 들어 name의 type 속성값을 personal로 지정하면 개인명임을 나타낸다. 자료의 유형을 기술하는 상위요소 명칭은 type이 아니라 typeOfResource이다.

NoteBase

문 16. <보기>에서 MARC21로 기술된 사항을 KORMARC 통합서지용(개정판)으로 변경할 때 ㉠~㉤에 해당하는 식별기호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지시기호와 띄어쓰기는 제외한다.)

<보기>
MARC21
245 ▼aRomeo and Juliet ; ▼bHamlet ; King Lear / ▼c W. Shakespeare ; illustrated by Jimmy Caruso

KORMARC 통합서지용(개정판)
245 ▼aRomeo and Juliet ; ㉠Hamlet ; ㉡King Lear / ㉢ W. Shakespeare ; ㉣illustrated by Jimmy Caruso

① ㉠: ▼a, ㉡: ▼a, ㉢: ▼d, ㉣: ▼d
② ㉠: ▼a, ㉡: ▼b, ㉢: 식별기호 미사용, ㉣: 식별기호 미사용
③ ㉠: ▼a, ㉡: ▼a, ㉢: ▼d, ㉣: ▼e
④ ㉠: ▼b, ㉡: ▼b, ㉢: ▼d, ㉣: ▼d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KORMARC에서는 종합표제가 없는 여러 작품의 표제를 각각 **▼a로 반복**하여 기술한다. 책임표시는 **첫 번째는 ▼d, 두 번째 이하는 ▼e**로 구분하므로, 저자 뒤에 오는 삽화가의 책임표시에는 ▼e를 쓴다.

NoteBase

빈칸별 해설

MARC21의 245 필드는 종합표제가 없는 자료의 첫 번째 작품 표제를 ▼a에, 이어지는 표제들을 ▼b에 기술하며, 책임표시는 ▼c에 모아 기술한다. KORMARC 통합서지용에서는 각 작품의 표제에 ▼a를 반복하고 책임표시는 ▼d와 ▼e로 나눈다. 따라서 원래 식별기호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각 내용의 역할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

㉠ ▼a: Hamlet은 Romeo and Juliet을 보충하는 설명이 아니라 **별개의 작품 표제**이다. 종합표제 없이 개별 작품의 표제가 나열되어 있으므로, 두 번째 작품에도 본표제 식별기호 ▼a를 반복한다. KORMARC의 ▼b는 표제를 보완하거나 설명하는 표제관련정보에 쓰는 기호이므로 이 자리에 맞지 않는다.

㉡ ▼a: King Lear 역시 독립된 작품의 표제이다. MARC21 원문에서는 Hamlet과 함께 하나의 ▼b 안에 들어 있지만, KORMARC에서는 세 번째 작품 앞에도 **▼a를 다시 부여**한다.

㉢ ▼d: W. Shakespeare는 나열된 작품의 저자로, 빗금(/) 뒤에 제시된 **첫 번째 책임표시**이다. KORMARC에서는 이 책임표시에 ▼d를 사용한다.

㉣ ▼e: illustrated by Jimmy Caruso는 삽화가의 책임표시이며 저자의 책임표시 다음에 온다. KORMARC에서는 **두 번째 이하의 책임표시**에 ▼e를 사용한다. 저자와 삽화가는 역할이 다르므로 쌍반점(;)으로 구분하되, 첫 번째 책임표시용 ▼d를 다시 쓰지는 않는다.

㉠~㉣에 들어갈 식별기호는 ▼a, ▼a, ▼d, ▼e이며, 이는 ③의 조합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7. <보기>는 KORMARC 통합서지용(개정판) 형식으로 작성한 레코드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지시기호와 띄어쓰기는 제외한다.)

<보기>
245 ▼a로지 브라이도티, 포스트휴먼 /▼(㉠)이경란 저
260 ▼a서울 : ▼b커뮤니케이션북스,▼c2017
(㉡) ▼a컴북스이론총서
504 ▼a참고문헌수록
(㉢) ▼a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aBraidotti, Rosi
700 ▼a이경란, ▼d1959-
830 ▼a컴북스이론총서

① ㉠: d, ㉡: 490, ㉢: 536, ㉣: 600
② ㉠: d, ㉡: 440, ㉢: 586, ㉣: 700
③ ㉠: d, ㉡: 490, ㉢: 536, ㉣: 700
④ ㉠: c, ㉡: 440, ㉢: 536, ㉣: 6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이경란은 책을 쓴 사람이지만, 표제에 나온 브라이도티는 책에서 다루는 인물이다. 브라이도티의 이름은 저자 부출용 700이 아니라 **개인명 주제명부출표목인 600**에 기록한다.

NoteBase

빈칸별 해설

㉠ d: 245 필드는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을 기록하며, 식별기호 ▼d는 **첫 번째 책임표시**를 나타낸다. '이경란 저'는 이 자료를 누가 썼는지 밝히는 첫 번째 책임표시이므로 ▼d로 기술한다.

㉡ 490: '컴북스이론총서'는 이 책이 속한 총서이므로 **총서사항을 기록하는 490**에 기술한다. 아래의 830은 총서표제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총서부출표목이다. 이처럼 490에 총서사항을 기록하고 830에 총서부출표목을 별도로 기록한다. 440은 총서사항과 부출표목의 기능을 함께 하던 필드로, 문제의 통합서지용 개정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 536: 정부 재원과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라는 내용은 **연구비 지원에 관한 기금정보 주기**이므로 536에 기록한다. 586은 수상 내역을 기록하는 '수상 주기'이므로 연구비 지원 사실을 기술하는 이 자리에는 맞지 않는다.

㉣ 600: 표제는 '로지 브라이도티, 포스트휴먼'이고 책임표시는 '이경란 저'이다. 따라서 Braidotti, Rosi는 이 책의 저자가 아니라 **책에서 주제로 다루는 인물**이므로 '주제명부출표목 - 개인명'인 600에 기록한다. 저자인 이경란은 이미 700 '부출표목 - 개인명'에 기록되어 있다. 개인명이라는 형식만으로 700을 선택하지 않고, 그 인물이 자료의 주제인지 저작에 참여한 사람인지 구별해야 한다.

㉠~㉣에 들어갈 내용은 d, 490, 536, 600이며, ①의 조합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8. FRAD(Functional Requirements for Authority Data, 2009)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IFLA에서 제안한 전거데이터에 관한 개념모형이다.

② FRBR의 10개 개체에 제2집단의 개체로 '가족'이 추가되어 서지개체를 11개로 정의하고 있다.

③ 탐색(find), 식별(identify), 선정(select), 확보(obtain)의 이용자과업을 수행한다.

④ 서지개체는 이름 및 식별기호로 식별되며, 목록작성 과정에서 이들 이름과 식별기호가 제어된 접근점의 작성 기반으로 사용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선정(select), 확보(obtain)'는 FRBR의 이용자과업이다. FRAD의 이용자과업은 **탐색·식별·맥락화·정당화**로, 개체를 찾고 구별하며 관계와 접근점 선정 근거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둔다.

선지별 해설

① O: FRAD는 IFLA가 제안한 **전거데이터의 개념모형**이다. 전거데이터에 담기는 개체·속성·관계를 이용자의 요구와 연결하여 전거제어와 데이터 공유를 지원한다.

② O: FRBR의 10개 서지개체에 **가족을 추가하여 11개**로 확장한다. 이에 따라 제2집단은 개인·가족·단체로 구성된다. 이 11개는 서지개체의 수이며, 이름·식별기호·제어된 접근점 등 전거제어에 필요한 개체는 별도로 다룬다.

③ X: 탐색·식별·선정·확보는 FRBR의 이용자과업이다. FRAD에서는 **선정·확보 대신 맥락화(contextualize)·정당화(justify)**를 제시한다. 탐색은 조건에 맞는 개체를 찾는 것, 식별은 찾은 개체가 원하는 대상인지 확인하거나 유사한 개체를 구별하는 것이다. 맥락화는 개체 사이 또는 개체와 이름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며, 정당화는 제어된 접근점의 기반이 되는 이름이나 이름 형식을 선택한 근거를 기록하는 것이다.

④ O: 서지개체는 이름이나 식별기호로 알려지고 식별되며, 이들은 **제어된 접근점의 작성 기반**이 된다. 제어된 접근점은 목록작성 규칙에 따라 정한 이름·명칭 등의 검색 접근점으로, 이용자가 해당 개체를 일관되게 찾도록 돕는다.

NoteBase

문 19. RDA(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FRBR은 RDA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개념모형이다.

② RDA의 목차는 자료유형별로 기술되어 있다.

③ 목록기능에 있어서 기술과 접근의 분리를 하지 않고 있다.

④ 식별 요소마다 기록할 데이터의 용어를 범주화하여 제공하고 있어 선택입력이 가능하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의 '자료유형별'은 AACR2의 구성 방식이다. RDA는 FRBR 개념모형을 바탕으로 **개체의 속성과 개체 간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FRBR은 서지레코드에 필요한 개체·속성·관계를 체계화한 개념모형이다. RDA는 이를 이론적 기반으로 삼아 **저작·표현형·구현형·개별자료** 등의 속성과 관계를 기록하는 지침을 마련하였다.

② X: 도서·지도·녹음자료 등 자료유형별로 장을 나누는 방식은 AACR2의 특징이다. RDA의 목차는 **개체의 속성과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구현형과 개별자료의 속성을 기록하는 부분, 저작과 표현형의 속성을 기록하는 부분, 개체 간 관계를 기록하는 부분으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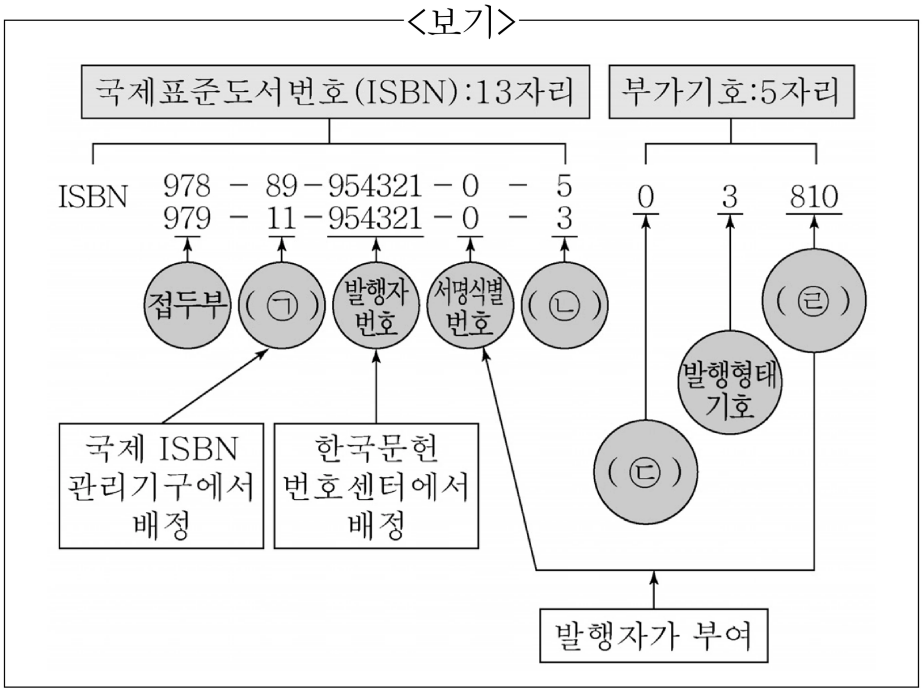
③ O: AACR2는 자료를 식별하기 위한 기술부와 검색의 단서가 되는 표목을 정하는 표목부를 구분하였다. RDA는 이러한 구분 대신 개체의 속성과 관계를 이용자의 요구에 연결하여 **기술과 접근을 통합적으로 다룬다**. 자료의 특성을 기록하고 다른 자원이나 관련 인물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이 식별과 검색을 함께 지원한다.

④ O: RDA는 식별 요소에 기록할 용어를 범주화한 목록으로 제시하여 **해당 용어를 선택해 입력**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내용유형은 'text', 'spoken word' 등의 용어 목록에서 자료에 맞는 값을 선택한다. 이는 같은 특성을 일관된 용어로 기록하도록 돕는다.

NoteBase

문 20. <보기>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의 구조를 설명한 것이다. ㉠~㉣을 순서대로 채운 것 중 가장 옳은 것은?

<보기>



① ㉠: 체크기호, ㉡: 국별번호, ㉣: 내용분류기호, ㉢: 독자대상기호

② ㉠: 체크기호, ㉡: 국별번호, ㉣: 독자대상기호, ㉢: 내용분류기호

③ ㉠: 국별번호, ㉡: 체크기호, ㉣: 내용분류기호, ㉢: 독자대상기호

④ ㉠: 국별번호, ㉡: 체크기호, ㉣: 독자대상기호, ㉢: 내용분류기호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ISBN에서 89·11은 **국별번호**이고, 마지막 한 자리는 번호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체크기호**이다. 부가기호는 **첫 자리가 독자대상**, 마지막 세 자리가 내용분류를 나타낸다.

NoteBase

빈칸별 해설

㉠ 국별번호: 도식에서 접두부 978·979 다음에 오는 89·11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는 접두부가 978이면 89, 979이면 11이 배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자리는 **국가를 구분하는 번호**이다.

㉡ 체크기호: 도식에서 13자리 ISBN의 맨 끝에 있는 5·3을 가리킨다. 앞선 숫자들을 바탕으로 정해지며, **ISBN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데 쓰인다. 국가를 나타내는 국별번호와는 역할이 다르다.

㉢ 독자대상기호: 부가기호 5자리 중 **첫 한 자리**에 해당한다. 어떤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책인지를 나타내며, 도식의 0은 일반 독자를 위한 교양 도서를 뜻한다. 그다음 한 자리인 3은 도식에 표시된 발행형태기호이다.

㉣ 내용분류기호: 부가기호 중 **마지막 세 자리**인 810에 해당한다. 책이 다루는 내용의 주제를 분류하여 나타낸다. 독자대상기호가 '누가 읽는가'를 나타낸다면, 내용분류기호는 '무엇을 다루는가'를 나타낸다.

㉠부터 ㉣까지는 국별번호·체크기호·독자대상기호·내용분류기호이므로 ④의 조합과 일치한다.

NoteBase